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다시 기로’

시, 호텔·부지 활용 첫 연구용역
건물 리모델링·철거 등 원점으로
생태 시민호텔 건립 항배 주목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도 재검토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의 옛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사업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호텔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첫 연구용역이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 내지 보존 여부를 비롯해 애초 제시된 생태 시민호텔 건립의 원점 재검토 등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영업이 중단된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사업비 3억원을 편성, 오는 9월 시의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민·관·정 위원회 협의,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용역안에 담긴 과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정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리모델링·철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용역 진행 중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안전진단 또는 철거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확정될 경우 안전진단(3~5개월)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4개월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 14일 오전 무안-베트남 나트랑(나짱)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이 재개, 국제선 출국장에 탑승객들이 수속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관련기사 2면

을 거쳐 사업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국비 투입 사업), 설계 공모 등을 거쳐게 된다.

앞서 무등산 난개발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는 공유화 3대 원칙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민·관·정 협의회는 무등산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무등산권 생태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 거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

3대 원칙을 정했다.

세부적으로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 시민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신양파크호텔 기존 건축물은 보존하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 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광주시는 이 같은 공유화 사업의 일환으

로 지난해 말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연차별 사업으로 국비 등 150억을 투입해 부지 및 기존 객실을 활용한 숙박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문화·교육을 위한 복합예술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도출될 용역 결과에 따라 신양파크호텔 개발과 연계해 이뤄질지, 아니면 별도 부지를 마련해 추진될지 여부가 판가를 날 전망이다.

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신양파크호텔 개발과 연계할 계획이었던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사업은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 재검토 될 것”이라며 “예술인 창작 공간인 아트플라자는 공유화와의 주요 목적과는 괴리가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예술의거리, ACC 등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지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시·도, 11개 신규 상생과제 추진

반도체 단지·광역철도 건설 등
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민선 8기 신규 상생과제로 도출했다.

시·도는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생발전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규 협력

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논의의 안건, 의제 등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정된 신규 협력과제 11건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

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산업 협력 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 전환 기후동맹 선언 ▲광주·전남 우리쌀 소비촉진 협력 등이다.

28일 열리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 공동협력과제 30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 시·도가 이번에 발굴한 신규 협력과제 11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현안과 도민 열망이 높은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 인구소멸지역 초등생 월 20만원 기본소득”

김대중 전남교육감, 내년 지급

내년부터 전남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학생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무한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2023년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며 “지역소멸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최

대의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전남지역 모든 학생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학생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환준 기자

INSIDE NEWS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뒤틀전’ ▶7면
기획 / 노관규 순천시장 ▶11면

2022.07.14.

질병관리청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4차접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접종대상** | 50세 이상 연령층(1972년생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

· **접종방법** | ① 당일접종(7.18.(월)-)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② 사전예약(7.18.(월)-), 예약접종(8.1.(월)-) |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관한 정보는 코로나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